

“가치관 확실하다면 진로변경은 언제든 가능”

(3)
가 (SMU)



서 지원서를 체크할 때 당연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된다. 상하이저널 학생기자 경험은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고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내 생각을 조금 더 끄적거릴 수 있을 듯 해 지원했다. 학생기자 경험 자체를 아주 값지게 생각한다. 여느 누구와 같이 상하이에서 학교 생활하며 대학입시 등 많은 고민이 있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나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기사도 썼고, 무엇보다 내가 썼던 글이 신문이나 상하이방 홈페이지에 올라간 것을 보고 혼자 뿌듯해 하고 기뻐했다. 다시 생각해보도 많은 도움이 됐고 색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또 학생기자에 참여하며 기사 기고 했던 것이 글을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방면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

상하이에서 학교 생활은 굉장히 즐거웠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마 12학년, 대학입시 때 정도였다. 어느 대학에 가야 할지도 잘 몰랐다. 진로도 인문학이나 기껏 하면 패션에 관심이 있었다. 두 학과가 다 미국에서 장래가 유망하지만 미국 대학은 합격의 문제라기보다 비싼 학비가 골칫거리였다. 12학년 때는 AP를 모두 듣겠다고 해 듣기 싫어하는 것도 듣고, 공부는 공부대로 힘들고, 다른 문제들도 머리를 아프게 했다. 대학은 어디 갈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사필귀정이라고, 고달파도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풀리긴 했다. 공부는 하기 싫은데 점수는 받아야 되고 잔머리도 많이 굴리고 그랬다. 요즘 '존버'라고 많이들 쓰는데 딱 내가 그랬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나니 포기하게 됐다. 포기하면 편하다.

대학은 생각보다 편한 마음으로 지원했는데 합격했다. 대입 준비로 힘든 후배들이 많다면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갖고 입학하면 좋겠다.

현재 진로는 고등학교 졸업에 다다라서 정하게 됐다. 원래는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NTU) 사학과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진로는 사학 또는 철학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패션에 관심이 생겼다. 인문학은 나 자신을 표현하고 이해하려는 수단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패션이나 스타일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와 내재돼있는 가치관들을 더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나타낼 수 있는 매개체로 간주하게 됐다. 이후로 급속도로 관심을 갖게 됐다.

참고로 평소의 나는 옷을 잘 입지도, 어떤 철학이나 역사에 통달하지도 않았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나만의 가치관이 확립돼있다. 책임감과 가치관이 확실하다면 진로변경은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특정 전공이나 진로보다는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지향점으로 삼고 목표에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골수 문과라 고등학교에서 인문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사회학도 문과이기에 학교에서 관심분야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들을 통해 진학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별히 한 것은 없고 주어진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다.

졸업 후, 3년간 싱가포르 정부와의 보조금 계약으로 인해 취업을 하고 거주를 해야 한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가 공익근무를 마친다면 미국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의 2년제 학과 과정을 통해 전공을 패션 산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싶다. 물론, 언제든지 계획은 수정될 수 있다.

그런 걱정은 특별히 없었다. 계속 한군데만 있어도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기회가 있으면 방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계속 나를 변화시키며 발전시키고 싶다. 무엇을 하든, 어떤 곳을 가든, 새로움이라는 기회는 어느 정도의 모험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다.

굳이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상하이를 정신적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어 한국이 오히려 외국 같을 때도 있다. 어차피 외국에 살 것이라면 더 건문을 넓힐 수 있는 곳에 가자는 생각이었다. 상하이나 싱가포르에 살면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많고 지금도 그렇다. 싱가포르가 외지라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축복이라 생각한다.

가 NUS, NTU, SMU를 지원할 때는 세 학교의 문화나 학과,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우선 NUS, NTU의 경우 학교에서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있다. SMU는 뭔가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할 수 있다. 단과대학인 SMU는 기숙사도 학교 건물에서 10분 가량 떨어져 있고, 학교 건물들도 시 중심부에 위치해있다. NUS와 NTU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반면 넓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대학 내 버스를 운영할 정도다. NTU는 가끔씩 캠퍼스에 동물들도 출몰한다. 그리고 NUS와 NTU의 강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행해진다면, SMU는 학교의 규모가 조금 더 작고, 미국 와튼 스쿨과의 협력으로 생겨난 곳이라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교류가 활발한 세미나식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 학교 모두 다 좋은 학교지만, 서로의 특징들이 조금씩 달라 여러모로 고려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1 LAB(International Academy Beijing)
2-6 (Concordia)
6-12 : SAT 1 1490 / SAT 2 2280 / 114

고등학생이 되면서 시작하게 됐다. CCA로는 퀴즈볼과 이어북 이렇게 2개정도만 했다. CCA보다 저는 NHD(National History Day)라고 콩코디아에서 집중하던 역사 관련 프로젝트 대회를 열심히 했다. 상하이저널에 이 대회 관련 기사를 쓰기도 했다. 9학년 때 중국지역 예선 웹사이트 부분 3등, 10학년 때 2등을 해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가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 지원할 때 교외활동을 3개정도 적어야 했다. 가장 첫번째가 상하이저널 학생기자단 활동이었다. 대학 쪽에

(10)

화동정법대 창닝캠퍼스 중국어 프로그램 모집요강

1952년 (원)성요한대학, 복단대학, 남경대학, 동오대학 등 9개 대학의 법률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가 합병되어 설립된 학교입니다. 현재 창닝 캠퍼스와 송강 캠퍼스가 있으며 재학생 수는 21000여 명으로 중국정부 장학금을 받는 유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특색	학교주변환경
우수한 강사진 · 풍부한 교수경험 ▶ 다년간의 한국유학 경험을 지닌 강사진 보유 ▶ 소그룹 및 개성화 학습방안 실시 ▶ 완벽한 교학시설 / 풍부한 운영 경험	유구한 역사 역사적 명문대이고 100여년의 역사 보유 지리적 위치 소주하(苏州河)와 중산공원 사이에 위치 편리한 교통 지하철 2, 3, 4, 11호선 / 버스 13, 20, 54 316, 330, 519, 737, 765, 776, 825, 941, 946, 947

코스	학습기간	수업시간	비용
중국어 코스	9월 11일~1월 13일 (18주)	월~금 09:00~12:15	접수비: 450원 학비: 9,000원

※단체신청은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화동정법대 학부생 과정 모집

할인쿠폰 1000元

※신문광고로 신청하면 1000元 할인됩니다

법학을 위주로 경제학, 관리학, 문학, 이학 등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대학이며 법률교육의 동방명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응용, 복합, 개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법학과는 전국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학과와 공공관리학은 상대해 중 일류학과로 손꼽힙니다.

학교 환경

송강대학성(松江大学城)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7개 대학과 학교시설 공유

- ▶ 학습, 생활 등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음
- ▶ 교통이 편리하며 지하철 9호선은 서가휘(徐家汇)까지 직통

학교 우세

많은 한국유학생들을 배출 현재 한·중 양국에서 법률 및 각 업계에서 활약 / 취업비전이 좋음

- ▶ 국제화에 앞장서고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과 교류협력관계를 맺음(시드니대학교 / 리즈대학교 / 워싱턴대학 시애틀루이스 분교 / 오슬랜드 대학교 / 서울대학교 / 제주국립대학교 / 한양대학교 / 인하대학교 등)
- ▶ **추천학과 4년제** : 민상법학과, 국제법학과, 경제법학과, 중국어문학학과, 신문학과 / **2년제 편입** : 법학과
- ▶ **신청자격 4년제** : 고등학교 졸업증 소지 / **2년제 편입** : 2년제 전문대 졸업증 소지